

여성에서 병리적 자기애와 SNS 중독의 관계: 행동활성화체계의 매개효과와 행동억제체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김 지 선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황 성 훈[‡]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애적 성격이 SNS 중독 경향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이해하고자 실시되었다. 자기애가 높으면 인정과 보상을 추구하는 행동활성화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가 작용하므로 이에 적합한 환경인 SNS의 과사용으로 이어진다는 BAS 매개 가설을 검증하고, 더 나아가 BAS를 경유하는 간접효과는 처벌을 피하려는 행동억제체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IS)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조절된 매개 가설을 입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서울 지역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중 여성 292명에게 병리적 자기애 척도(PNI), 처벌 및 보상 민감성 질문지(SPSRQ), 그리고 SNS 중독 경향성 척도를 실시했다. Process Macro 2.16(Hayes, 2013)을 이용해 Preacher, Rucker 및 Hayes(2007)에 따라 매개, 조절, 그리고 조절된 매개분석으로 구성되는 3단계의 순차적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1단계에서 자기애와 SNS 중독의 관계를 BAS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BAS가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BIS의 수준에 따라 달라져서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3단계 분석에서는 가정했던 조절된 매개모형이 최종적으로 지지되었다. 여성에서 자기애가 BAS를 중간 기제로 SNS 중독으로 이어지되, BAS를 거치는 간접효과의 강도는 BIS의 수준이 높을 때 커지는 양상이었다. 이는 자기애적인 사람은 BAS가 높고, 동시에 BIS도 높을 때 SNS 중독이라는 증상을 발현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미래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병리적 자기애, SNS 중독 경향성, BAS/BIS, 강화 민감성, 조건부 간접효과

[†] 이 논문은 김지선(2018)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며, 일부 내용은 2018년 10월 한국 임상심리학회에서 포스터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황성훈,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 및 임상심리학과 교수,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0, Tel: 02-2290-0114, E-mail: thinkgrey@hanmail.net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는 비슷한 취향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활발히 할수록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큰 파급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SNS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송혜진, 2011), 확인되지 않는 과잉 정보들이 확산되며, SNS의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자극적인 영상과 범죄 행위까지 생중계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한 관계의 특징인 선택적 관계 맺기, 선호하지 않는 관계의 회피 등으로 인해 피상적 대인관계 양상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있다(김은미, 이동후, 임영호, 정일권, 2011). 특히 SNS의 과다하고 충동적인 사용으로 인한 중독의 문제도 대두되면서(Andreassen, Pallesen, & Griffiths, 2017) 국내외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늘고 있지만, 비교적 신생 미디어이므로 아직까지 SNS 중독에 대한 통합된 이론과 정확한 진단 준거가 정립되지 않았다(Kuss & Griffiths, 2011).

국내에서는 주로 SNS 중독 경향성이라는 개념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오윤경(2012)은 SNS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금단과 내성을 경험하면서 스트레스, 우울증, 의존증, 집중력 저하, 강박 등의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나타나 개인의 일상생활과 적응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SNS 중독 경향성을 정의하고 있다. 이상호와 고아라(2013)는 SNS 중독을 사이버 중독의 일종으로서 ‘관계 집착형 SNS 중독’으로 좁혀서 정의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정의를 종합하여, SNS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금단과 내성을 경험하면서 개인 내적인 심리적 부작용과 외적인 대인관계에서

역기능을 초래하는 것으로 SNS 중독 경향성을 정의하고자 한다.

SNS 중독을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취약한 특징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정화, 김호영, 강정석, 2017).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SNS 사용 통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몰입하며 내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김선미, 서경현, 2013), 이용기간, 이용시간, 접속률에 따른 SNS 중독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SNS 중독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정소영, 김종남, 2014) 향후 연구의 방향 설정에 있어 SNS 중독에 취약한 여성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해야 할 근거를 시사한다.

그동안 다수의 연구에서 탐구된 개인 내 심리적 변인이 자기예성 성격인데(김선미, 서경현, 2013; 이예지, 2017; 조다현, 2014; Andreassen et al., 2017; Ahn, Kwolek, & Bowman, 2015), 그 이유는 SNS가 그들의 웅대성을 점화시킬 수 있는 이상적 도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McCain & Campbell, 2018). 적정한 수준의 자기에는 자신감을 표현하고 자기 주장을 드러낼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Campbell, Reeder, Sedikides, & Elliot, 2000), 병리적 수준의 자기에는 걸음으로 드러나는 웅대성과 내적으로 취약한 낮은 자존감 사이에서의 변동이 크므로 이상적인 자기를 구성할 수 있는 가상환경을 통해서만 안정적인 자기감을 취하려 할 수 있기에 SNS 중독에 더 취약할 수 있다(Kuss & Griffiths,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병리적 자기에서 출발하여 SNS 중독이라는 증상에 이르는 병리 기제를 밝히고자 그 후보로 행동활성화체계(Behavioral Approach System: BAS)와 행동억제

체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IS)에 초점을 맞추었다.

BAS와 BIS는 물질 사용이나 도박 같은 다양한 중독과 관련되어 연구된 바 있고(김태연, 이인혜, 2010; 박재욱, 2006; Franken, 2002; MacLaren & Best, 2013), SNS 중독에도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김한나, 2015; 김혜미, 2012). 자존감의 내적 근거가 빈약한 자기애적 성향자(Kohut, 1977)가 SNS 속의 비대면 접촉과 자기 노출에 빠지는 배 후에는 승인과 찬사와 같은 보상에 민감한 BAS와, 불승인과 비난과 같은 처벌에 민감한 BIS가 함께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웅대한 자기를 제시하려는 접근 동기(즉, BAS 민감성)와 취약한 자기를 가리고자 하는 회피 동기(즉, BIS 민감성)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이에 최적화된 가상 환경을 제공하는 SNS에 과몰입하게 된다는 가정을 검증하고자 했다.

병리적 자기애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도취적이고 웅대함을 표방하면서 동시에 모순되게도 타인의 관심, 존경, 칭찬을 끊임없이 구한다(Campbell & Foster, 2007). 이러한 자기애적 역설(narcissistic paradox)은 웅대성의 기저에 공허함과 취약함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들은 통합되지 못한 취약한 자기애에 대해 자각하면서 불안을 경험하고, 외부 대상으로부터 자기 존재를 끊임없이 인정받고 확인하려는 욕구를 가진다(Kohut, 1977). 외면적으로는 자신감 넘쳐 보이나, 외부의 평가와 승인을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타당화한다는 점에서, 내면에 뿌리깊은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Fourie, 2010; Morf & Rhodewalt, 2001). Kernberg(1975)는 ‘웅대하지만 취약한’ 자기라는 개념으로 이들의 내적 세계를 압축하고 있다.

자기애의 핵심 특성인 인정 욕구를 성취할 수 있는 도구로 최근 들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SNS이다(Gentile et al., 2012). SNS는 자기애자들에게 우월성, 독창성, 특별함이라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이상적 환경이며, 면대면 관계에서 충족되지 않는 소속 욕구를 채우는 매체가 된다(Casale & Fioravanti, 2017). 실제로 자기애적인 집단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데 관심이 많으며(Casale & Fioravanti, 2017), 웅대성이 강한 경우는 SNS 상에서 자기 제시에 더 적극적이나, 취약성이 강한 경우에는 조심스럽고 방어적인 모습을 보인다(Ahn et al., 2015; Hart, Adams, Burton, & Tortoriello, 2017; McCain & Campbell, 2018).

인정과 찬사를 추구하되, 그 방략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과시하는 웅대성 측면과 내보이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조심하는 취약성의 측면이 병리적 자기애 속에 공존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뛰어난 점을 계속 확인받고자 하며, 동시에 취약성을 회피하면서 자존감을 고양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잘남의 재확인과 못남의 회피라는 자기애의 주요 욕구가 SNS를 탐닉 대상으로 취하게 되는 기제로써 보상을 추구하고 처벌을 회피하는 동기 체계의 과민함이 작용한다고 가정하고, 그 후보로 강화 민감성에 주목했다.

강화 민감성과 정신병리

강화 민감성 이론은 보상, 처벌 그리고 혐오 자

극 각각에 대해 민감한 신경체계가 구분되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Eysenck, 1967; Gray, 1981, 1987). Gray(1981)는 보상에 민감한 기제를 행동 활성화체계(BAS)로, 처벌에 반응하는 기제를 행동 억제체계(BIS)로, 그리고 무조건적 혐오 자극에 민감한 기제를 투쟁-도피체계(Fight-Flight System: FFS)로 각각 구분하였다. BAS는 보상 단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만드는 접근동기체계(O'Connor, Stewart, & Watt, 2009)로 개인이 바라는 목표를 향해 다가가고자 할 때 활성화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망, 흥분,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기분과 관련이 있다(김교현, 김원식, 2001; Gray, 1991). BIS는 조건화된 위협 자극인 처벌 신호나 비보상 자극에 반응해서 불안을 경험하며, 현재 진행 중인 행동을 멈추고 다른 위협이나 위협 단서들을 찾기 위해 환경을 조사하도록 유도하는 동기체계이고(김태연, 이인혜, 2010), 끝으로 FFS는 무조건적 혐오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도피, 회피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Corr, 2002).

각 체계들은 인간의 행동과 동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병리학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이선미, 2011, 2012; Taylor et al., 2006). BAS는 도파민 체계로서 좌측 전두엽 영역의 활성화와 같은 신경생물학적 기전과 연결되는데(Pickering & Gray, 2001), 병리로는 음주, 약물, 흡연 및 도박과 같은 중독 및 충동 조절의 곤란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Franken, Muris, & Georgieva, 2006), 정서조절곤란이 특징인 양극성 장애의 발병을 설명하고(Alloy et al., 2008), 성격장애 중 극적 행동과 불안정한 정서가 특징인 군집 B와 관련되어

있다(이인혜, 황현국, 2015). 반면 BIS는 세로토닌 경로로서 우측 전두엽 활동과 연관되어서 병리로는 불안이나 걱정 수준의 증가와 관련되고(김희진, 2015; Muris, Meesters, & Spinder, 2003),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며(김재분, 2015; 임숙희, 김교현, 2009), 성격장애 중에서도 높은 불안이 특징인 군집 C와 관련이 있다(이인혜, 황현국, 2015).

SNS 과몰입은 일종의 행위 중독으로 넓은 의미의 중독 스펙트럼 장애에 속할 수 있다(Griffiths, 2005). 중독의 핵심 기제는 동일하다는 중독 증후군 모델(Shaffer et al., 2004)에 의거하여 논리를 확장하면 강화 민감성은 물질 사용뿐만 아니라 SNS 중독을 설명하는 신경심리적, 동기적 기제로 검토될 수 있다. 특히, BAS는 물질 중독뿐만 아니라(Franken & Muris, 2006), 도박과 같은 행위 중독의 중요한 기제임이 밝혀진 바 있다(김태연, 이인혜, 2010).

정리하면, 인정과 찬사의 욕구를 가진 자기애적 성향자들에게 SNS는 매력적 대상일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대상으로 SNS에 탐닉할 수 있다. 문제는 자기애와 SNS 중독을 잇는 것으로써 욕구와 만족이라는 추상적 연결 고리보다는 좀 더 근거와 실체를 갖춘 중간 기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미 다른 중독의 영역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밝혀진 바 있는 BAS와 BIS라는 기질적 행동조절체계이다. 실제로 병리적 자기애는 BAS를 매개로 약물 사용, 도박, 성, 부적절한 대인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MacLaren & Best,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성향자가 SNS의 과도한 사용에 이르게 되는 생물학적 기제이자 동기체계로 BAS와

BIS가 작용한다는 가정을 검증하고자 한다.

자기애의 SNS 중독화 과정에서 BAS와 BIS의 역할

지금까지 자기애의 중독화 과정에서 매개변인으로 연구된 것은 주로 강화 민감성 요인 중에서도 BAS였다(Franken, 2002; MacLaren & Best, 2013). 반면에 BIS는 중독보다는 우울증(Kasch, Rottenberg, Arnow, & Gotlib, 2002)이나 사회불안(Kimbrel, Mitchell, & Nelson-Gray, 2011)과 같은 내재화 장애의 맥락에서 연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SNS 중독을 설명하는 중간변인으로써 강화 민감성을 다루되, BAS뿐만 아니라 BIS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BAS와 BIS의 상호작용을 다룬 국내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윤병수, 2008; 윤병수, 정봉교, 2009; 이석호, 2009), 특히 SNS 중독 경향성과 관련한 연구에 적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BAS와 더불어서 BIS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강화 민감성 이론에서 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Gray(1982)는 본래 BAS와 BIS가 분리되어 있다는 하위체계 ‘독립’ 가설을 가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BAS가 높은 개인은 BIS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BAS가 낮은 개인보다 보상에 더 강하게 반응하고, BIS가 높은 개인은 BAS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BIS가 낮은 개인보다 처벌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반면 Corr(2002; 2008)는 대안으로 하위체계 ‘결합’ 가설을 제안하였다. 이는 BAS와 BIS가 서로 결합하거나 상호작용하여 기능 차이를 유발

한다고 가정한다. 둘의 상호작용은 길항적이어서 마치 시소를 타듯이 하나가 높고 반대로 다른 하나는 낮아질 때 회피 및 접근 반응성은 촉진된다(Mortensen, Lehn, Evensmoen, & Haberg, 2015). 즉, 긍정 자극에 대한 반응은 높은 BAS(높은 충동성)와 낮은 BIS(낮은 불안)를 가진 개인에서 가장 높고, 혐오 자극에 대한 반응은 낮은 BAS(낮은 충동성)와 높은 BIS(높은 불안)를 가진 개인에서 가장 높다. 이는 회피 및 접근 행동은 BAS와 BIS의 영향을 모두 받되(박재욱, 2006), 접근 행동은 보상 민감성(BAS)이 높고 처벌 민감성(BIS)이 떨어질 때, 회피 행동은 처벌 민감성(BIS)이 높고 보상 민감성(BAS)이 낮은 조합을 이룰 때 각각 촉진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하위체계의 결합 양상이 길항적 촉진의 형태를 띠지 않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일례로 주요 우울장애 환자에서는 높은 BAS와 낮은 BIS의 길항 작용이 나타났으나,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에서는 BIS와 BAS 모두 상승된 양상을 보였다(Soler et al., 2014). 이와 일관되게, 애정 없는 부모의 통제에 노출되었을 때 높은 BAS와 높은 BIS가 상호작용하여 A군 성격장애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Hundt, Nelson-Gray, Kimbrel, Mitchell, & Kwapil, 2007), 두 체계의 모순적 동시 상승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더해, 자기애성 성격이 표면적 웅대성과 기저의 취약성이라는 역설적 이중 구조를 가지므로(Fourie, 2010; Kernberg, 1975; Kohut, 1977; Morf & Rhodewalt, 2001) 둘의 결합 양상을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승인과 찬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SNS를 향하게 하는 기제로서 BAS의 상승을, 그리고 불승인과

비난을 피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SNS 친화(親和) 기제로써 BIS의 상승을 가정할 수 있으므로, 길항적 촉진보다는 모순적 동시 활성화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강화 민감성을 이루는 BAS와 BIS의 상호작용 양상으로써 본 연구는 두 가능성을 대안적인 가설로 설정하여 검증해 보고자 했다.

하위체계 결합 가설을 지지하는 선행연구들은 중독병리에서 BAS와 BIS가 상호작용함을 시사한다. BAS와 BIS가 병리화의 중간과정에서 보이는 상호작용을 어떻게 모형화할지가 과제였는데, 이에 적합한 분석의 프레임으로 조절된 매개모형을 선정하였다. BAS와 BIS처럼 둘 이상의 중간변인이 상호작용한다면, 이는 두 변인 중 하나가 담당하는 매개효과가 다른 것에 의해 조절된다는 틀로 검증할 수 있다. 문제는 무엇을 선행하는 매개변인으로, 무엇을 후행하는 조절변인으로 설정할지였다. 선행연구의 흐름을 보면 중독 맥락에서 BAS가 BIS에 비해 더 자주 검증된 안정적인 매개변인이었으므로(김태연, 이인혜, 2010; Franken, 2002; Franken & Muris, 2006; Franken, Muris, & Georgieva, 2006; MacLaren & Best, 2013),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BAS를 선행 매개변인으로, 그리고 이와 상호작용하는 BIS를 후행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병리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의 관계를 BAS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2: 병리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의 관계에서 BAS를 경유하는 간접효과는 BIS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그 양상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대안적이고 상호 배타적인 세부대안 가설로 구체

화될 수 있다.

세부대안가설 2-1: BAS의 간접효과는 BIS가 낮을수록 강할 것이다(길항적 활성화 양상)

세부대안가설 2-2: BAS의 간접효과는 BIS가 높을수록 강할 것이다(동시적 활성화 양상)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소재 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 중인 성인 여성 30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심리학 강좌의 수업 계획서에 포함된 이수 사항의 하나로 연구에 참가하였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가산점이 주어졌고, 연구에 참여하는 도중 부담감이나 불편감을 느낄 경우 의사에 따라 그만둘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연구 참여를 원치 않는 경우는 연구와 비슷한 비중의 소규모 과제를 대체로 수행하면 동일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다. 연구대상은 여성이 남성보다 SNS 중독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정소영, 김종남, 2014; 조다현, 2014; 김선미, 서경현, 2015; Acar, 2008)에 근거해 여성으로 한정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는 292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37.4세($SD=9.41$)였고, 평균 교육연한은 14.5년($SD=1.90$)이었다.

측정 도구

병리적 자기애 척도(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NI). Pincus 등 (2009)이 자기애성

성격 및 그 하위요인인 웅대성과 취약성을 동시에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형 설문지로 국내에서 양진원(2012)이 번안하였다. 원척도는 총 52문항으로 6점 Likert 척도상(0점 “전혀 나같지 않다.”, 5점 “매우 나같다.”)에서 평정된다. 한국판 PNI는 원척도의 7개요인 중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부하량이 낮았던 ‘자기 숨김’ 요인을 제외한 총 35문항이 채택되었다. ‘자기 숨김’ 요인이 삭제된 것은 약점을 드러내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피하는 것과 관련된 문항(예: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내가 나약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양의 집단주의와 원척도 개발국인 미국의 개인주의적 문화 차이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양진원, 권석만, 2016). 나머지 하위요인으로는 변동하는 자존감(예: ‘나에게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평가절하(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키면, 나는 종종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곤 한다’), 특권분노(예: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견에 반대하면 나는 매우 화가 난다’) 등 3개의 취약성 요인, 그리고 웅대 환상(예: ‘나는 내 주변의 세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상을 자주 한다’), 착취(예: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말을 잘 해서 모면할 수 있다’), 자기희생-자기고양(예: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 등 3개의 웅대성 요인으로 구성된다. 양진원(2012)이 보고한 Cronbach’s α 는 요인별로 .85~.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가 .96으로 나타났다.

처벌 및 보상 민감성 질문지(Sensitivity to Punishment and Sensitivity to Reward Questionnaire: SPSRQ). Torrubia 등(2001)에 의해 개발된 BIS, BAS의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이다. Gray(1981, 1981)는 강화 민감성 이론에서 특정한 단서에 대한 민감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Carver와 White(1994)의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BAS/BIS Scale)는 일반적인 수준의 보상과 처벌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Torrubia 등(2001)은 처벌 및 보상 민감성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여 BAS와 BIS의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태연과 이인혜(2010)가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처벌 민감성(Sensitivity to Punishment: SP)을 반영하는 BIS 24문항(예: ‘창피당할까봐 두려워 가능한 한 당신의 능력을 보이기를 피하는 편입니다’)과 보상 민감성(Sensitivity to Reward: SR)을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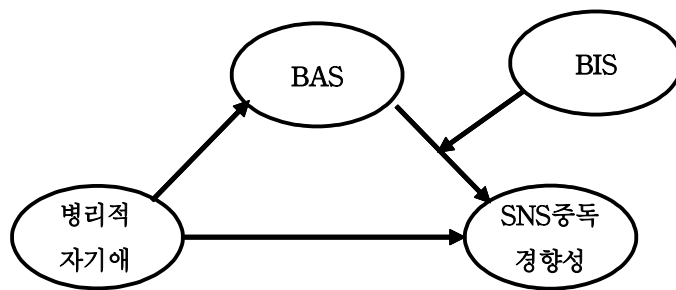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조절된 매개모형

영하는 BAS 24문항(예: ‘당신은 칭찬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경향이 자주 있습니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에서 평정된다. 김태연과 이인혜(2010)에서 Cronbach’s α 는 BIS가 .87, BAS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9, .82였고, 전체는 .89로 나타났다.

SNS 중독 경향성 척도. Young(1996)과 한국 정보화진흥원(2005)이 개발한 인터넷 중독 척도를 기반으로 개발한 오윤경(2012)의 SNS 중독 경향성 척도를 서경현, 조성현(2013)이 수정하고 보완한 SNS 중독 경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SNS 집착 및 금단 증상을 반영하는 10문항(예: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SNS를 사용한 적이 있다’), SNS 과잉소통과 몰입을 반영하는 7문항(예: ‘길을 걷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 중에도 SNS를 이용한다’),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를 반영하는 3문항(예: ‘SNS를 일단 시작하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상(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에서 평정되고, Cronbach’s α 는 서경현과 조성현(2013)에서 .94로, 본 연구 표집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통계 분석

기초 분석으로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SPSS 24.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Cronbach’s α 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검증했다. 주요 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

차를 산출하였고, 정규성 검증을 위해 왜도(skewness) 및 첨도(kurtosis)를 확인하였다.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2.16(Hayes, 2013)을 사용했다. 가설 1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 매개효과 검증과 함께,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을 추정하기 위한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14번 모형(Hayes, 2013)을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했다. Preacher, Rucker 및 Hayes(2007)는 조절된 매개효과의 검증 절차로 매개모형, 조절모형, 그리고 조절된 매개모형을 차례로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으므로, 본 연구도 이에 따라 3단계의 순차적 분석을 하였다.

결 과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각 변인들이 검증을 위한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왜도는 절댓값 3 미만, 첨도는 절댓값 10 미만이면 정규분포에 근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Kline, 2005),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변인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병리적 자기애는 BAS, BIS, 그리고 SNS 중독 경향성 각각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675, p<.01$; $r=.571, p<.01$; $r=.523, p<.01$.

선행연구들의 상관분석 결과의 범위는 .35~.43의 수준으로(신미경, 2016; 이영은, 박현주, 허창

구, 2016; 제현채, 김정규, 2014), 본 연구의 상관 지수는 수치상으로 통상의 범주에 부합되어 매개 효과 분석을 위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BAS는 SNS 중독 경향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r=.441, p<.01$. 한편, 처벌 신호에 민감한 BIS는 SNS 중독 경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314, p<.01$. 단순 상관만을 고려할 때 BIS가 높을수록 SNS에 친화적이 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BAS와 BIS의 상관은 본 연구 표집에서는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r=.294, p<.01$. BAS와 BIS는 독립적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하위체계 결합 가설과 관련하여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신호일 수 있다.

병리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BAS의 매개효과

병리적 자기애가 보상에 민감한 동기체계인

BAS의 활성화를 매개로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4번 모형(Hayes, 2013)을 지정하여 단순 매개분석을 했다. 단순 매개모형에서 독립변인은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병리적 자기애를 독립변인으로, SNS 중독 경향을 종속변인으로, BAS를 매개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표 3에서 보듯이 병리적 자기애는 SNS 중독 경향의 증가를 유의하게 설명하여서, $B=.30, t=10.44, p<.001$. 병리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BAS 민감성이 유의하게 고조되었다, $B=.26, t=15.59, p<.001$. 이어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리적 자기애와 BAS를 회귀식에 동시 투입했다. 그 결과, 매개변인인 BAS는 SNS 중독 경향성을 유의하게 설명했고, $B=.24, t=2.39, p<.05$, 독립변인인 병리적 자기애의 유의한 정적 영향은 여전하나, 그 크기가 감소해서, $B=.24, t=6.14, p<.001$, 병리적 자기애와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N=292$)

	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병리적 자기애	0-5	1.89	0.88	0.17	-0.35	
민감성	행동활성화체계(BAS)	1-4	2.19	0.34	-0.01	0.29
	행동억제체계(BIS)	1-4	2.49	0.45	0.08	0.10
	전체	1-4	2.34	0.32	-0.12	0.35
SNS 중독 경향성	1-4	1.54	0.51	1.26	1.52	

표 2.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N=292$)

	1	2	3	4
1. 병리적 자기애	-			
2. 행동활성화체계(BAS)	.675**	-		
3. 행동억제체계(BIS)	.571**	.294**	-	
4. SNS 중독 경향성	.523**	.441**	.314**	-

** $p < .01$.

SNS 중독 경향의 관계를 BAS는 부분매개하였다.

BAS를 경유하는 간접 효과가 실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복원 추출을 10,000번 시행하였다.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Shrout & Bolger, 2002) Bootstrapping을 통한 경험적 분포에서 얻어진 신뢰구간은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0을 포함하지 않아서, $B=.06$, 95% CI[.01, .11], 자기애가 BAS를 통해서 SNS 중독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했다. 따라서 병리적 자기애가 BAS를 중간 기제로 SNS 중독으로 향한다는 첫 번째 연구 가설은 지지되었다.

BAS와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BIS의 조절효과

Preacher 등(2007)이 제안한 분석의 순서에 따

라, BAS가 SNS 중독 경향에 미치는 영향이 BIS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두 번째로 분석했다. 조절효과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관계의 강도 혹은 방향이 조절변인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Wu & Zumbo, 2008),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이 상호작용하여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Process Macro 1번 모형(Hayes, 2013)을 지정하여 BAS를 독립변인, SNS 중독 경향성을 종속변인, BIS를 조절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BIS의 부적 조건효과(conditional effect)가 유의해서, $B=-.79$, $t=-2.30$, $p<.01$, BIS가 높을수록 SNS 중독 경향은 감소했다. 반면 BAS의 조건효과(conditional effect)는 유의하지 않았다, $B=-.49$, $t=-1.40$, *ns*. 중요한 결과는 상위의 효과이자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BAS와 BIS의 상호작용항인데, 이것이 SNS 중독 경향을 유의하게 설명했고, $B=.44$, $t=3.07$, $p<.01$, SNS 중독 경향에 대한 설명을 2% 더 증

표 3. 병리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BAS의 매개분석 ($N=292$)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t	95% CI		F	R ²
					LL	UL		
병리적 자기애	BAS	.26	.02	15.59***	.23	.29	243.14***	.46
병리적 자기애	SNS 중독 경향성	.30	.03	10.44***	.24	.36	108.92***	.27
BAS	SNS 중독 경향성	.24	.10	2.39*	.05	.44	58.21***	.29
병리적 자기애	SNS 중독 경향성	.24	.04	6.14***	.16	.31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BAS=행동활성화체계.
* $p<.05$. *** $p<.001$.

표 4. BAS를 경유하는 간접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방법	B	SE	95% CI	
			LL	UL
Bootstrapping	.06	.02	.01	.11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가시켜서, $\Delta R^2=.02$, $p<.01$, 모두 27%를 설명했다. 따라서 BAS가 SNS 중독 경향에 미치는 영향이 BIS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이 지지되었다. 조절효과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2와 같

이 단순 기울기 분석(Simple Slope Analysis; Aiken & West, 1991)을 시행하였다. BIS 민감성의 수준을 평균(중), 평균보다 1 표준편차 큰 값(고), 그리고 평균보다 1 표준편차 작은 값(저)으

표 5. BAS와 SNS 중독 경향성과의 관계에서 BIS의 조절효과 ($N=292$)

	<i>B</i>	<i>SE</i>	<i>t</i>	95% CI		<i>F</i>	<i>R</i> ²	ΔR^2
				LL	UL			
BIS	-.79	.32	-2.30**	-1.35	-.11			
BAS	-.49	.35	-1.40	-1.20	.20	32.96***	.25***	.25***
BAS × BIS	.44	.14	3.07**	.16	.72	9.46***	.27***	.02**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 $p<.01$. *** $p<.001$.

표 6. BIS의 수준에 따른 BAS의 회귀계수

BIS의 수준	effect	<i>SE</i> [†]	95% CI [†]	
			LL	UL
저($M-1SD$)	.40	.10	.20	.59
중(M)	.59	.08	.44	.75
고($M+1SD$)	.79	.11	.58	1.00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 SE와 CI는 10,000번의 Bootstrapping을 통해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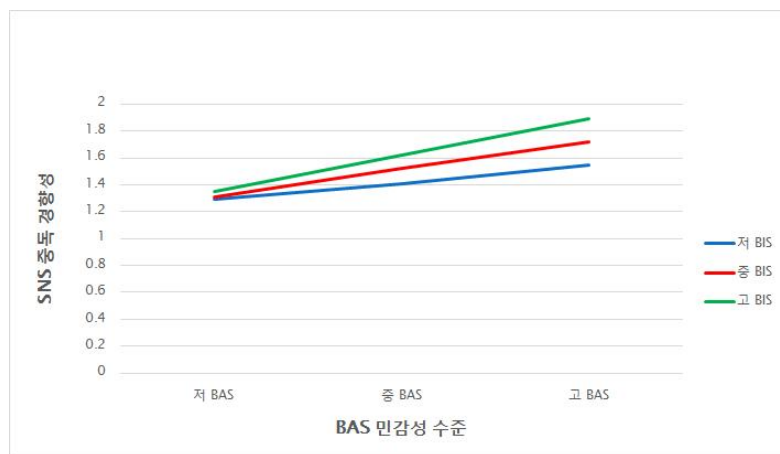


그림 2. BIS의 조절효과에 대한 단순 기울기 분석

로 나누고, 각 수준에서 BAS가 SNS 중독 경향성을 예측하는 정도를 비교하였다. 표 6에서 보듯이 BAS가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하되,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BIS의 수준이 높을수록 회귀계수가 커져서 BAS의 영향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BIS 수준이 높아질수록 BAS가 SNS 중독 경향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강해지므로, 아직 최종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2단계 분석은 하위체계 결합 가설 중 동시적 활성화 양상(세부대안 가설 2-2)이 길항적 활성화 양상(세부대안 가설 2-1)에 비해 더 타당함을 보인다.

병리적 자기애, BAS, SNS 중독의 관계에서 BIS의 조절된 매개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의 방향이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Hayes, 2013). 이를 검증하는 절차로 1단계에서는 매개모형이, 2단계에서는 조절모형이 차례대로 지지되었으므로, 이 둘을 논리적으로 결합하면 결국 조절된 매개효과가 성립된다. 그러나 이들은 부분모형(reduced model)의 검증이므로 전체모형(full model)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3단

계에서는 그림 3과 같이 Process Macro 14번 모형(Hayes, 2013)을 활용하여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병리적 자기애는 BAS 활성화를 고조시켰고, $B=.26, t=15.60, p<.001$, SNS 중독 경향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B=.22, t=-2.42, p<.001$. 이어서, 독립변인인 병리적 자기애를 통제된 후에 BIS, BAS, 그리고 둘의 상호작용항이 SNS 중독 경향성을 설명하는 정도를 살펴봐왔다.

그 결과, BIS와 BAS 각각의 부적 조건효과(conditional effect)가 유의했다, $B=-.93, t=-3.04, p<.01$; $B=-.84, p<.05$. 또한 상위의 효과인 둘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여서, $B=.45, t=3.30, p<.01$, 조절된 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따라서 병리적 자기애가 BAS를 통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BIS 수준에 따라 조건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Hayes(2013)는 조절된 매개효과인 ω 를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제안하였다:

$$\omega = a(b_1 + b_3 V) = ab_1 + ab_3 V \quad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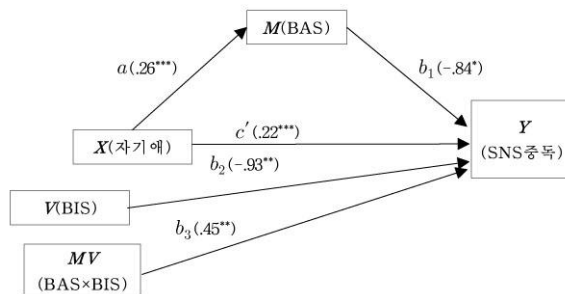


그림 3. 조절된 매개모형의 통계모형

표 7. BIS와 BAS의 상호작용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N=292)

종속변인: BAS			
병리적 자기애(a)	B	SE	t
	.26	.02	15.60***
종속변인: SNS 중독 경향성			
병리적 자기애(c')	.22	.04	4.96***
BAS(b)	-.84	.35	-2.42*
BIS(b ₂)	-.93	.31	-3.04**
BAS × BIS(b ₂)	.45	.14	3.30**

** $p < .01$. *** $p < .001$.

위의 공식 (1)에서 ab_1 은 절편이고 ab_3 는 기울기이다. ω 함수에서 V의 계수인 ab_3 가 조절된 매개지수이고, 이는 조절변인인 V가 독립변인→매개변인→종속변인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수량화한 것이다(Hayes, 2013). 본 연구에서 조절된 매개 지수인 ab_3 는 0.117로 산출되었고, 95% Bootstrap 신뢰 구간은 [0.04, 0.20]이었다.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조건부 간접효과, 즉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간접효과가 어떠한 양상으로 조절되는지를 해석하기 위해 조절변인인 BIS의 수준을 저(-1SD), 중(M), 고(+1SD)로 구분하여, 각 수준별로 간접효과와 신뢰구간을 10,000번의 Bootstrapping을 통해 추정하였다.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BIS 수준이 높거나 중간일 때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서 간접효과는 유의했다. 반면에 BIS 수준이 낮을 때는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어서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병리적 자기애가 BAS를 경유해서 SNS 중독 경향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BIS의 수준이 보통이거나 그 이상일 때 실제하고, BIS가 낮을 때는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모형에 대한 최종 분석에서도 BAS와 BIS가 동시에 높을 때 자기애와 SNS 중독을 잇는 인과경로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하위체계의 결합 가설이 지지되며, 그 양상으로는 길항적 활성화(세부대안가설 2-1)보다는 동시 활성화(세부대안가설 2-2)가 더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BIS의 수준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즉, 조건부 간접효과)의 크기

BIS 수준	조건부 간접효과	SE [†]	95% CI [†]	
			LL	UL
저(M-1SD)	.02	.03	-.04	.07
중(M)	.07	.03	.02	.12
고(M+1SD)	.12	.04	.06	.20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 SE와 CI는 10,000번의 Bootstrapping을 통해 추정함.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SNS 중독화 현상의 성격적 기반으로서 병리적 자기에 주목하고, 중독화의 중간기제로 보상에 민감한 BAS와 처벌에 반응하는 BIS가 함께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을 입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자기와 SNS 중독의 관계를 BAS가 매개하고, BIS는 조절된 매개를 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을 정리하고,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병리적 자기에는 BAS를 매개로 SNS 중독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본 연구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BAS의 매개효과는 부분적이어서, 병리적 자기에는 SNS 중독에 대해 직접효과도 있었고, BAS를 거치는 간접효과도 있었다. 이는 웅대성 자기와 중독 행동의 관계를 BAS가 매개한다는 것(MacLaren & Best, 2013)과 일관되며, 웅대성 자기가 높은 BAS 민감성을 가지고 있고 강한 접근 동기는 자기에적 자존감 추구하고 연관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Foster & Trimm, 2008; Spencer, Foster, & Bedwell, 2017)와 부합한다. 따라서 다른 중독과의 관계에서처럼 높은 보상 추고 및 접근 지향성이 SNS 중독을 일으키는 핵심적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BAS의 매개효과가 부분적이었으므로 자기가 SNS 중독에 이르는 대안적 경로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미 밝혀진 것으로는 부적응적 자기 제시, 경험회피 등이 있는데(김선미, 서경현, 2015; 이예지, 2017), 향후 연구를 통해 매개변인의 목록이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목록에

는 병리적 자기에의 핵심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승인 추구의 욕구, 비난에 대한 예민성, 수치심,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의 경향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BAS의 이러한 간접효과가 BIS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조건부 간접효과, 즉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어서 본 연구의 가설 2가 지지되었고, BAS와 BIS는 상호작용한다는 하위체계 결합 가설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세부가설로서 BAS와 BIS의 결합에 의해 길항적 촉진 작용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둘의 동시 상승이 관찰되는지를 가늠해 보았는데, 그 양상은 후자를 지지하였다. 자기에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SNS에 가까워지는 순간은 보상 민감성과 처벌 민감성이 동시에 높을 때였다.

드러난 웅대성과 숨은 취약성의 역설적 조합으로 자기를 조망한다면, 전자는 BAS 민감성과 후자는 BIS 민감성과 각각 대응되므로 두 하위체계의 모순적 동시 활성화를 납득할 수 있다. 타인으로부터 승인과 자기 확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접근’ 동기(BAS)와 대면관계에서 불안을 경감하고자 선택적 자기 제시가 가능한 인터넷 공간으로 향하는 ‘회피’ 동기(BIS)는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 가능한 추론으로써, 높은 접근 동기와 충동성이 자기에적인 사람을 중독으로 기울어지게 하고, 높은 회피 동기와 불안은 중독의 매체로서 물질 사용이나 다른 모험적인 행위 중독보다는 SNS를 택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자기에 성향자가 대인관계나 사회적 상황에서 평균 또는 그 이상의 불안 수준을 느낄 때, 불안을 경감하거나 자존감을 조절하기 위한 방략으로 가상적인 SNS를 충동적으로 사용하게

될 수 있다(Weiss, 2013).

BAS와 BIS의 동시 활성화가 자기에 성향자를 SNS 중독으로 안내하는 구체적 기제를 밝히는 것은 향후 연구의 몫으로 남는다. 그러나 본 연구가 중독을 설명하는 기제로서 BAS와 BIS의 결합 가설을 입증했고, 그 양상이 동시 활성화의 모습을 띤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중독의 이해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A군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 장애에서 BAS와 BIS가 모두 상승된 양상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Hundt et al., 2008; Soler et al., 2014)를 자기에적 성향자로부터 얻어진 본 연구의 발견과 나란히 놓아보면, 두 동기체계의 동시 활성화는 성격 통합의 미숙성에 대한 기질적 표시자(marker)일 수 있다. 이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분리(splitting)와 내적 모순을 보이는 다양한 병리에서 BAS와 BIS의 결합 양상을 살피는 후속 연구를 계획할 수 있다.

BAS와 BIS의 동시 활성화가 자기에 성향자를 SNS 의존으로 이끈다면, 이 기제를 변경하는 치료적 개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BAS와 BIS로 비롯된 문제들을 완충하기 위해 고려되는 방법 중 하나가 마음챙김이다(홍성신, 2017; Hamill, Pickett, Amsbaugh, & Aho, 2015). BAS와 BIS 두 체계는 주의 편향을 유도한다는 공통된 특성이 있다. 높은 BAS 민감성을 가진 사람은 보상을 가져오는 자극의 추구에 강하게 반응하는 주의 편향을 보이고, 높은 BIS 민감성을 가진 사람은 위협적 상황이나 단서에 주의가 편향되어 있다(홍성신, 2017). 두 경우 모두 과도한 주의 편향은 사고의 유연성을 방해하여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는데, 마음챙김은 개인의 내부나 외부에 몰입되어 있는 주의를 '지금 매 순간'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경험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심리적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BAS와 BIS를 완화하고 달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BAS와 BIS는 외적으로 주어진 보상과 처벌에 의해 동기화되는 행동들에 관한 것이다. 유기체는 재미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흥분되는 일이 있어야 마음이 비로소 동(動)하며, 불안하거나 불편한 일은 벌이지 않으려는 존재로 조명된다. 강화 민감성 이론에는 내재적 동기화에 대한 관심이 없다. 자기에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들의 재미인 다른 사람의 감탄을 듣기 위해 SNS 상에서 자기 과시를 하며, 동시에 누군가의 부정적 평가로부터는 한 번의 클릭으로 피신할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들의 행동은 달거나 쓴 외적인 강화에 의해 대부분 좌우되고, 자기 결정의 여지는 없다. 따라서 치료를 위해서는 BAS와 BIS의 민감성을 낮추는 것에 더해서, 외재적 동기화의 틀을 내재적 동기화(Deci, 1971; Ryan & Deci, 2008)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적인 보상과 처벌을 자기 위로와 건설적인 반성으로 내면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기질적 변인인 동기체계 민감성의 차이가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주목하고, 병리적 자기애라는 성격특질에서 강화 민감성의 수준과 SNS 중독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강화 민감성을 이루는 두 하위체계인 BAS와 BIS가 결합되어 상호작용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좀 더 넓은 시야의 접근을 하고자 했다. 그 결과, 자기애라는 기저의 성격특질이 중독이라는 부적응 증상으로 발현되는 경로에서 높은 보상 추구 및 접근 지향성(BAS)이 매개변인으로서 일차

적으로 작용한다면, 그 상태를 악화시키는 이차 요인은 높은 처벌 민감성 및 회피 지향성(BIS)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자기에적 성격 성향자의 SNS 중독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보상에 대한 접근 지향성뿐만 아니라 처벌에 대한 회피 지향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요인적 개입 방법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론적, 임상적 시사점과 나란히 본 연구는 미래의 연구에 의해 보완되어야 할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연구 표집의 문제로 비임상군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의 연구에서는 중독 위험군인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역시 표집의 문제로서 유병률을 고려한 선택이었지만 대상을 여성에 국한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성차를 다룬 기존 연구와 관련지어보면, 자기에적 성격장애에 대한 강화 민감성의 설명력을 파악해 본 결과, 남성은 BAS와 BIS 모두가 유의했으나, 여성의 경우는 BAS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황현국, 이인혜, 2015), 본 연구에서 BAS 및 BIS의 동시 활성화가 발견된 것은 여성 표집의 특성에 기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동일한 자기에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성별에 따라 BAS와 BIS 역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남성 표집을 확보해서 비교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의 한계는 자기에의 하위 유형에 따라 SNS 중독에 이르는 트랙이 어떻게 다르거나 같은지에 대한 조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기에를 내현형과 외현형으로 구분하는 전통이 있고(Akhtar & Thomson, 1982; Gabbard, 1998), 이는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적 통계 편람 5판(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의 Section 3에 제시된 자기에적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에도 반영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병리적 자기에의 측정치로 사용한 PNI도 주요 요인으로서 웅대성 및 취약성 점수를 제공한다. 그러나 본 연구 표집에서 웅대성과 취약성 하위척도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서, $r=.686$, $p<.001$, 둘은 분리되기보다는 공존하는 양상이었다. 이에 더해, 외현형 대(對) 내현형의 구분이 웅대성 대 취약성의 구분과 일치하지 않아서, 외현적 취약성이나 내현적 웅대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Pincus & Lukowitsky, 2010). 따라서 강화 민감성을 거쳐 SNS 중독에 이르는 경로가 내현형과 외현형 자기에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다룬 미래의 연구는 하위 유형을 타당하게 구분하기 위해 PNI 같은 단일 척도에 의지하기보다는 이에 더해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NPI; Raskin & Terry, 1988),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HSNS; Hendin & Cheek, 1997), Covert Narcissism Scale(CNS; 강선희, 정남운, 2002) 등을 수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 정의한 SNS라는 개념 아래 포함된 사이트들의 특성과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이 모호했다. 플랫폼마다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클 경우에 지나친 일반화와 과잉단순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SNS 중독을 평가하는 것은 자기에자들이 선호하는 것을 차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끝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만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자기보고식 방법은 사회적 바람직성 등의 영향으로 인해 수검자가 자신의 실제

모습을 왜곡하여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등을 이용한 생태학적 순간 평가 기법(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EMA)으로서 일기법(장승민, 2011)을 사용할 수 있다. SNS 접속이 이루어진 전후의 생태적 맥락과 정서 변화를 직접 측정하는 것은 중독의 기전을 보다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슈로 빠르게 등장하고 있는 SNS 중독에 취약한 성격적 기반으로 자기애가 존재하며 그들의 중독화 기제로서 강화 민감성의 역할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보상의 민감성뿐만 아니라 처벌의 민감성도 높을 때,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SNS를 향한다는 결과는 승인과 불승인, 달콤한 말과 쓴 말을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SNS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 길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참 고 문 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김교현, 김원식 (2001). 한국판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BAS/BIS)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19-37.
- 김선미, 서경현 (2015).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3), 587-603.
- 김은미, 이동후, 임영호, 정일권 (2011). SNS 혁명의 신화와 실제: '토크, 플레이, 러브'의 진화. 서울: 나남.
- 김재분 (2015).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체계가 역기능적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불안과 자의식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태연, 이인혜 (2010). 강화민감성이 도박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3), 685-707.
- 김한나 (2015). 대학생의 행동억제체계(BIS)가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미 (2012). 행동활성화 체계와 행동억제 체계 (BAS/BIS)가 인터넷 게임중독자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진 (2015). 강화민감성과 주의조절 불안 공포 증상 간의 관계 BIS/FFFS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재욱 (2006). 비임상 집단에서 충동성과 불안이 도박에 미치는 효과: Corr의 결합하위체계 가설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경현, 조성현 (2013). SNS 중독 경향성 관련 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239-250.
- 송혜진 (2011).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SNS 중독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2), 31-49.
- 신미경 (2016).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에 대한 구조 모형 검증: 심리 사회적 변인과 온라인 상호작용 선호 경향성 및 SNS 이용동기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진원 (2012). 병리적 자기애 성향자의 웅대성과 취약성에 따른 정서적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진원, 권석만 (2016). 병리적 자기애 성향자의 웅대성과 취약성에 따른 정서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5(1), 215-242.
- 오윤경 (2012). SNS 중독 경향성과 외로움,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지지와의 관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병수 (2008). BIS/BAS 하위체계 연결가설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스트레스, 희망 및 건강통제 소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4), 923-942.

- 윤병수, 정봉교 (2009). 행동억제와 행동활성 체계가 정서자각, 정서억제 및 정서표현을 매개로 한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1), 219-233.
- 이상호, 고아라 (2013). 소셜미디어 중독의 영향 요인 연구: 페이스북 이용자의 인식과 몰입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57(6), 176-210.
- 이석호 (2009). 정서반응성, 행동억제 및 활성화체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선미 (2011). 행동활성화/억제체계가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선미 (2012). 행동접근체계, 행동억제체계 및 투쟁-도피-동결체계를 이용한 정서관련 정신병리의 예측.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은, 박현주, 허창구 (2016). 내현적·외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성격 및 사회*, 30(1), 63-80
- 이예지 (2017). 병리적 자기애의 웅대성 취약성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인혜, 황현국 (2015). 성격특성과 성격장애 증상간의 관계: 개정된 강화민감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4(1), 231-261.
- 이정화, 김호영, 강정석 (2017). 외로움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임상*, 36(2) 154-164.
- 임숙희, 김교현(2009). 낯섦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여대생들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체불만족의 매개효과와 행동접근체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4), 853-869.
- 장승민 (2011). 일기법을 이용한 심리학 연구의 최근 동향과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677-706.
- 정소영, 김종남 (2014).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147-166.
- 제현채, 김정규 (2014). 내현적 자기애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4(3), 477-489.
- 조다현 (2014). SNS 중독 경향성과 병리적 자기애, 정서 표현성, 친구 지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성신 (2017). BAS/BIS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마음챙김과 부정적 자기 초점적 주의의 매개효과. *한국상담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현국, 이인혜 (2015). Jackson-5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임상*, 34(3), 787-807.
- Acar, A. (2008).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online social networking behavior: The case of Facebook. *Journal of Website Promotion*, 3(1-2), 62-83.
- Ahn, H., Kwolek, E. A., & Bowman, N. D. (2015). Two faces of narcissism on SNS: The distinct effects of vulnerable and grandiose narcissism on SNS privacy control.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5, 375 - 381.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s, London: Sage Publications.
-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 Alloy, L. B., Abramson, L. Y., Walshaw, P. D., Cogswell, A., Grandin, L. D., Hughes, M. E., Iacoviello, B. M, Whitehouse, W. G, Urosevic, S., Nusslock, R., & Hogan, M. E. (2008). Behavioral approach system and behavioral inhibition system sensitivities and bipolar spectrum disorders: Prospective prediction of bipolar mood episodes. *Bipolar Disorders*, 10(2), 310-322.
- Andreassen, C. S., Pallesen, S., & Griffiths, M. D.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addictive use of social media, narcissism, and self-esteem: Findings from a large national survey. *Addictive Behaviors*, 64, 287-293.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 Washington, DC: Author.
- Campbell, W. K., Reeder, G. D., Sedikides, C., & Elliot, A. J. (2000). Narcissism and comparative self-enhancement strategi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4*(3), 329-47.
- Campbell, W. K., & Foster J. D. (2007). *The Self: The narcissistic self: Background, an extended agency model, and ongoing controversies*. New York: Taylor and Francis.
- Carver, C. S., White T. L. (1994). Behavioral inhibition, behavioral activation, and affective responses to impending reward and punishment: The BIS/B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2), 319-333.
- Casale, S., & Fioravanti, G. (2017). Why narcissists are at risk for developing Facebook addiction: The need to be admired and the need to belong. *Addictive Behaviors, 76*, 312-318.
- Corr, P. J. (2002). J. A. Gray's reinforcement sensitivity theory: tests of the joint subsystems hypothesis of anxiety and impuls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511-532.
- Corr, P. J. (2008). *Reinforcement sensitivity theory of person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ci, E. L. (1971). Effects of externally mediated rewards on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8*, 105-115.
- Eysenck H. J. (1967). *The biological basis of personality*. Springfield, IL: Thomas
- Fourie, D. B. (2010). Narcissistic Behaviour and the Successful Conservation of Ambivalence. *Psychological Reports, 106*(1), 217-230
- Foster, J. D., & Trimm, I. V. (2008). On being eager and uninhibited: Narcissism and approach-avoidance motiv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 1004-1017.
- Franken, I. H., Muris, P., & Georgieva, I. (2006). Gray's model of personality and addiction. *Addictive Behaviors, 31*(3), 399-403.
- Franken, I. H. (2002). Behavioral approach system(BAS) sensitivity predicts alcohol crav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2), 349-355.
- Franken, I. H., & Muris, P. (2006).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college students' substance us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7), 1497-1503.
- Gabbard, G. O. (1998). *Transference and countertransference in the treatment of narcissistic patients*. In E. F. Ronningstam (Ed.),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125-145,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Gentile, B., Twenge, J. M., Freeman, E. C., & Campbell, W. K. (2012). The effect of social networking websites on positive self-view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5), 1929-1933.
- Gray, J. A. (1981). A critique of Eysenck's theory of personality. In H. J. Eysenck (Ed.), *A model for personality* (pp. 246-276). Berlin: Springer-Verlag.
- Gray, J. A. (1982). *The neuropsychology of anxiety: an enquiry into the functions of the septo-hippocampal system*. Washington: Oxford University Press.
- Gray, J. A. (1987). Perspectives on anxiety and impulsivity: A commentar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1*, 493-509.
- Gray, J. A. (1991). Brain Systems that Mediate both Emotion and Cognition. *Cognition and Emotion, 4*(3), 269-288.
- Griffiths, M. (2005). A 'components' model of

- addiction within a biopsychosocial framework. *Journal of Substance Use* 10(4), 191-197.
- Hayes, A. F. (2013). Process macro를 이용한 매개분석 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이형권 역), 파주: 신영사.
- Hart, W., Adams, J., Burton, K. A., & Tortoriello, G. K. (2017). Narcissism and self-presentation: Profiling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ts' self-presentation tactic us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4, 48-57.
- Hamill, T. S., Pickett, S. M., Amsbaugh, H. M., & Aho, K. M. (2015). Mindfulness and acceptance in relation to Behavioral Inhibition System sensitivity and psychological distr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2, 24-29.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ity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588-599.
- Hundt, N. E., Kimbrel, N. A., Mitchell, J. T., & Nelson-Gray, R. O. (2008). High BAS, but not low BIS, predicts externalizing symptoms in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3), 565-575.
- Hundt, N. E., Nelson-Gray, R. O., Kimbrel, N. A., Mitchell, J. T., & Kwapil, T. R. (2007). The interaction of reinforcement sensitivity and life events in the prediction of anhedonic depression and mixed anxiety-depression sympto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 1001 - 1012.
- Kasch, K. L., Rottenberg J., Arnow B. A., Gotlib, I. H. (2002). Behavioral Activation and Inhibition Systems and the Severity and Course of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1(4), 589-597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 Kimbrel, N. A. Mitchell, J. T., & Nelson-Gray, R. O. (2011).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al approach system(BAS) sensitivity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4, 372-378.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Madison, CT: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line, T. J. (2005). *Psychological testing: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CA: Sage Publications.
- Kuss, D. J., & Griffiths, M. D. (2011).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8(9), 3528-3552.
- Kuss, D. J., & Griffiths, M. D. (2017). Social Networking Sites and Addiction: Ten Lessons Learned.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14(3), 311.
- MacLaren, V. V., & Best, L. A. (2013). Disagreeable narcissism mediates an effect of BAS on addictive behavio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3(2), 101-105.
- McCain, J. L., & Campbell, W. K. (2018). Narcissism and social media use: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y of Popular Media Culture*, 7(3), 308-327.
- Morf, C. C., & Rhodewalt, F. (2001). Unraveling the Paradoxes of Narcissism: A Dynamic Self-Regulatory Processing Model. *Psychological Inquiry*, 12(4), 177-196.
- Mortensen, J. A., Lehn, H., Evensmoen, H. R., & Haberg, A. K. (2015). Evidence for an antagonistic interaction between reward and punishment sensitivity on striatal activity: A verification of the Joint Subsystems Hypothesis.

-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4, 214 - 219.
- Muris, P., Meesters, C., Spinder, M. (2003). Relationships between child- and parent-reported behavioural inhibition and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in normal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5), 759-771.
- O'Connor, R. M., Stewart, S. H., Watt, M. C. (2009). Distinguishing BAS risk for university students' drinking, smoking, and gambling behavio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4), 514-519.
- Pickering, A., Gray, J. A., (2001). Dopamine, appetitive reinforcement, and the neuropsychology of human learning: an individual differences approach. In A. Elias & A. Angleitner (Eds.). *Advances in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113-149). Lengerich, Germany: PABST Science Publishers.
- Pincus, A. L. & Ansell, E. B. (2009). Initial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21(3), 365-379.
- Pincus, A. L., & Lukowitsky, M. R. (2010). Pathological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6, 421-446.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ss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i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90-902.
- Ryan, R. M., & Deci, E. L. (2008). A self-determination approach to psychotherapy: The motivational basis for effective change. *Psychology*, 49(3), 186-193.
- Shaffer, H. J., LaPlante, D. A., LaBrie, R. A., Kidman, R. C., Donato, A. N., & Stanton, M. V. (2004). Toward a syndrome model of addiction: Multiple expressions, common etiology.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12(6), 367-374.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oler, J., Vega, D., Elices, M., Feliu-Soler, A., Soto, À., Martín-Blanco, A., Marco-Pallarés, J., Torrubia, R., & Pascual, J. C. (2014). Testing the reinforcement sensitivity theory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ompared with major depression and healthy contro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1(62) 43-46.
- Spencer, C. C., Foster, J. D., & Bedwell, J. S. (2017).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Revised Reinforcement Sensitivity Theory and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32(5), 654-667.
- Taylor, J., Reeves, M., James, L. & Bobadilla, L. (2006). Disinhibitory trait profile and its relation to Cluster B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and substance use problem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0, 271-284.
- Torrubia, R., Avila, C., Molto, J., Caseras, X. (2001). The Sensitivity to Punishment and Sensitivity to Reward Questionnaire (SPSRQ) as a measure of Gray's anxiety and impulsivity dimens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6), 837-862.
- Weiss, D. E.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Social Networking, Social Anxiety, Self Esteem, Narcissism, and Gender among College Students*. Departement of Psychology, Pace

University. New York.

Wu, A. D., & Zumbo, B. D. (2008). Understanding and using mediators and moderators. *Social Indicators and Research*, 87(3), 367-392.

원고접수일: 2018년 11월 19일

논문심사일: 2018년 12월 17일

게재결정일: 2019년 3월 9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9. Vol. 24, No. 2, 487 - 509

The role of Reinforcement Sensiti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tic personality and SNS addiction proneness in women

Ji-sun Kim

Seodaemun-gu Counseling &
Welfare Center for Youth

Seong-hoon Hwang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Cyber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path of narcissistic personality toward SNS addiction proneness in women. The study intended to test the hypotheses that narcissistic personality would lead to the abuse of SNS through reward-seeking behavioral activation system(BAS), and that the indirect effect via BAS can depend on the level of behavioral inhibition system(BIS) to avoid punishment. In order to measure the variables,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PNI), Sensitivity to Punishment and Sensitivity to Reward Questionnaire(SPSRQ), and SNS Addictive Tendency scale were administered to 292 women cyber university students. To verify the hypotheses, Process Macro 2.16(Hayes, 2013) was used to analyze in three steps: mediation effect, moderation effect,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 according to Preacher, Rucker & Hayes(2007).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BAS was found to mediate parti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pathological narcissism and SNS addiction proneness. Second, moderation effect of B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AS and SNS addiction proneness was observed. Third, BIS also moderated the mediation effect of pathological narcissism on SNS addiction proneness via BAS. Narcissism leads to SNS addiction through BAS and the intensity of the indirect effect via BAS increases with increasing BIS level. This finding suggests that narcissistic people are more likely to develop symptoms of SNS addiction when both BAS and BIS levels are high.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n this study as well as the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Keywords: Narcissistic personality, SNS addiction proneness, Reinforcement Sensitivity, BIS/BAS, Conditional indirect effect